왜 12월 25일인가 (Why December 25)

엘리사 코프먼(Elesha Coffman) / 「크리스차니티투데이」지 편집인

이 글은 「크리스찬히스토리」(Christian History)지 2000년 12월 8~14일자에 실린 글을 허락을 받아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 Copyright©2000 by the author or Christianity Today International/Christian History magazine.

출처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etti)가 "눈 위에 눈 위에 눈"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한겨울"이라고 인상적으로 묘사한 바와 같이, 우리 미국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12월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첫 3세기 동안 크리스마스는 12월에도 있지 않았고, 달력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만약 성탄절을 지켰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창기에 제정된 축일 중에 하나인 주현절(主顯節)(예수님께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임을 드러낸 일을 기념하는 날, 1월 6일)에 한꺼번에 기념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생각 자체에 반대하기까지 했다. 오리겐(Origen, 185~254)은 바로나 헤롯이 예우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했다.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리겐과 동시대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말자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를 추측하기 시작했다(실제 기록이 없어진 지 오랜 듯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일반 사람들이 4월 18일이나 4월 19일, 아니면 5월 28일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5월 20일이라고 주장했다.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6)는 1월 2일을 옹호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1월 17일, 11월 20일, 3월 25일을 지지했다. 243년쯤에 기록된 한 라틴어 논문에 성탄일을 3월 21일이라고 못박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론에 근거해 폴리캅(Polycarp, 69~155)은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는 수요일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그 이유는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 273년쯤에 결정된 것으로 추측되는 성탄절 12월 25일이라는 최종 선택은, 이방 신들에 대한 기념일로 보는 오리겐의 우려와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의 태양과 동일하다는 교회의 증명이 수렴돼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2월 25일은 이미 관련이 있는 다른 두 축제 – 하나는 나탈리스 솔리스 인비크티(natalis solis invicti, 로마 방언으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널리 숭배했던 미트라스(Mithras, 이란

어로 '의의 태양'이란 이름을 가진 신)의 탄생일 - 가 치러지는 날이었다. 또 다른 태양의 경축일인 동지는 바로 며칠 앞이었다. 이교도들이 벌써 참된 하나님에 견주어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있음을 알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날짜를 빼앗아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서방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후, 336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그러나 동방 교회들은 1월 6일을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세례 받은 날로 지켰다. 그러다 결국 대부분의 동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에 경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직도 1월 6일에 성탄을 축하한다. 덧붙여 서방 교회는 1월 6일에 주현절을 기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세례 받은 날로 기념하기보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도착한 날로 기념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